



타원형 우주안에 '태풍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752호

(음력 4월 10일) 2025년 5월 7일 수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호남이 보는 대선... '국힘 단일화 내홍·이재명 사법리스크'



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으나 보수진영은 단일화를 놓고 충돌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쟁점이 되는 등 선거 정국이 혼돈의 연속이다.

6일 광주·전남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세력 청산 등 사회대개혁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조기 대선 정국이 곧바로 시작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선 체제로 전환해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졌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거쳐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음에도 무소속 탄핵수 후보와 단일화 여부를 놓고 내



홍을 벌이고 있다.

비상계엄 총리였던 한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지역 방문지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것이 악수였다.

한 후보는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이 일으킨 것으로 지칭하는 '광주사태'로 표현하며 "저도 호남사람입니다"라고 호소해 지역민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내란정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한 후보는 광주 시민이 마치 자신이 호남 사람인 것을 잘 몰라서 참배를 받듯 대항 것처럼 말하고 있다. 지역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라면 비열한 것이다. 광주시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전 없이 '반명 단일화' 몰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전면전 '비상계엄·탄핵 대선' 호남민 표심 주목

지역민들은 국민의힘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 갈등이 정확히 비전 없이 정치공학에만 몰두한 것으로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4일 광주를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정치공학적인 비전 없는 의미가 없다"며 단일화 참여에 선을 그었다.

지역 시민사회는 민주당의 정권 장악 욕망과 좌고우면이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초래했다고도 질타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내란세력에 대한 민주당의 좌고우면과 내란세력과의 적절한 타협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불러왔다"며 "정치공학적인 선거 논리에 빠져 사회개혁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대선이 비상계엄과 탄핵 후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이 오히려 민주당에는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상계엄 당시의 장관과 국무총리 간 단일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동력이 적은 데다, 대선을 불과 28일 앞두고 있

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는 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사법부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의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며,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초단기 파기환송을 놓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으나,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는 물론 법조계까지 사법부 비판에 가세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방송토론 과정의 일부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당선자가 아닌 낙선자를 기소할 것도 선거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파기환송 전에는 이 후보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그에 대한 비호감도의 일부를 차지했으나, 이례적인 속도를 거쳐 파기환송이 되자 오히려 이 후보가 사법부의 정치 판결로 박해를 받는 이미지도 형성됐다.

광주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탄핵 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 세력이 왜 다시 국정을 맡아야 하는지 유권자의 설득을 얻어내야 하는데 단일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번 비정상적인 상황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전남도 장애인체육대회 3일간 열전 마무리

순천시 우승...최우수선수상에 영암 출신 역도 3관왕 박소영 선수 차지

제33회 전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2일 장성군 홍길동체육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3일 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벽을 넘어 다 함께, 하나되어 힘차게!'라는 구호 아래 전남 22개 시·군에서 1만50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게이트볼, 좌식배구, 육상, 축구 등 21개 정식종목에서 치열한 경쟁과 우정의 교류가 펼쳐졌고, 도 장애인체육회와 장성군은 성공 개최를 위해 경기장과 편의시설 정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자원봉사자 운영 등으로 참가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올해는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역사상 최초로 야외 개최식이 장성 옐로우시티스타디움에서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대회기간 장애인 뉴스포츠, 휠체어보장구 수리센터 등 다양한 체험부스와 특산물 홍보 등 행사도 마련했다.

장성군은 선수들과 관객들에게는 음료와 다과 등이 담

긴 선물꾸러미를 증정하기도 했다.

우승은 20개 종목에 237명이 참가한 순천시에 돌아갔다. 여수와 광양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개최지 장성은 10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도약상을 받았다. 장흥은 모범선수단상, 무안은 으뜸선수단상, 고흥은 도전상, 구례는 열정상을 받았고, 공정경기상은 전남보치아연맹이 받았다.

최우수선수상은 영암 출신 역도 3관왕 박소영 선수가 차지했다.

또한 올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당구 종목의 조경화(한국농어촌공사)와 육상(필드 포함던지기) 종목의 나현철(한전KPS)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 앞서 밝은 청신호를 밝혔다. 이들의 뛰어난 활약에 힘입어 다가오는 전국체전에서 한층 더 우수한 성과가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가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



45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전남 장애인 체육의 저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대회가 차기 개최지인 구례군에 전달됐으며, 제34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는 2026년 구례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성=김수권기자

승리하는 전남 함께하는 드래곤즈

2025 전남드래곤즈 홈 개막전

하나은행 K LEAGUE 2 2025

전남드래곤즈 VS 성남FC

2025.5.11 (일) 16:30 @광양축구전용구장